

대니얼 팰스, 「서론」,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조병련·전중현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김민아

프리드리히 막스 뮐러(Friedrich Max Müller)가 1870년 2월 런던의 왕립학술협회 강연에서 ‘종교과학’(science of religion)을 설득하고자 했음.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적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과학’이라는 말이 기묘한 복합어라고 생각. 그러나 뮐러는 종교와 과학이 만날 수 있고, 종교에 대한 진지한 과학적 연구가 쌍방에게 기여할 점이 많다고 확신. “하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괴테)라는 말을 종교에 적용. 자신의 종교만이 옳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는 달리, 자기편 입장을 버리고 때와 장소를 막론한 모든 종교들에서 일률적인 요소와 양상과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풍습, 제의(rituals), 믿음(beliefs) 등 종교의 여러 사실들을 세계 전역에서 수집하여 비교하고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 이 강연은 1873년 『종교과학 서론』으로 출판.

독일의 교회사가 하르낙(Adolf von Harnack)의 반박. 그리스도교만이 중요하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 “누구든 그리스도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스도교와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 서양의 영적인 중추를 형성한 그리스도교의 숭고한 원리가 인간의 도덕적이고 문화적인 성취에서 극치를 표현한다는 것이 당시 유럽의 일반적 여론.

그러나 뮐러는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통해 인도와 중국의 현자들과 교회의 성자들과 순교자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확신.

○ 고대 이론들

종교가 무엇이고,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는가 하는 질문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 기원전 484-424), 저술가 유헤메루스(Euhemerus, 기원전 330-260), 스토아 철학자 크리시푸스(Chrysippus, 기원전 280-206) 등, 종교에 대한 사실들을 검토한 이들은 어떻게 종교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음.

○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상의 사상가들은 여러 신을 숭상하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 속 사람들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달랐음.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은 여러 종류의 신들과 제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이들에게는 오로지 한 분인 참된 하느님뿐. 이 하느님만이 실재하며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 유대교에서 비롯된 그리스도교의 초대 교회 사도들과 신학자들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을 통해 자신을 나타냈다고 보았음. 그리스도교가 고대세계에 전파되고 후에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이 견해가 서구문화를 지배.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 제국이 된 이후 거의 천 년 동안, 교회 신조 바깥의 종교들에 대한 이런 전투

적인 견해가 유지됨.

1500년경 세계탐험과 개신교 종교개혁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싹트기 시작. 탐험가, 상인, 선교사, 모험가들이 신세계와 동양을 향해하면서 유대인이나 무슬림 아닌 외국인들과 직접 접촉하게 됨. 예수회 신부 마태오 리치(Matteo Ricci)는 중국인들이 예술과 윤리와 문학으로 참된 문화를 지녔다는 것을 발견. 또 다른 예수회 신부 로버트 디 노빌리(Robert di Nobili)는 인도의 영적 지혜에 사로잡힘. 다른 선교사들도 신대륙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서 최고신(Supreme Being) 발견. 생각 있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악마의 제자들로 정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이 시기, 그리스도교 문명은 피비린내 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음.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와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장 칼뱅(John Calvin)이 선도한 새로운 개신교 운동은 교회의 권력에 도전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교회의 해석을 거부. 신학 논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 공동체가 갈라지고, 그리스도교세계가 수백 개의 종교집단들로 찢겨짐. 16세기와 17세기 교회의 충돌과 정치적 투쟁의 한복판에서 신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최종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됨.

○ 계몽주의와 자연종교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자연종교’(natural religion) 개념 주장. 자연종교는 이신론(理神論, deism)의 근본 신조 형성. 자연종교는 세상을 만들어 자연 그 자체의 법에 맡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 자연법에 병행하는 인간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률, 선에 대한 내생의 인과응보와 악에 대한 징벌의 약속 포함. 이신론자들에게는 이 신조가 최초 인간의 믿음이었으며, 전 인류의 일반 철학이었음. 인류 최상의 소망은 이 본래의 신조를 회복하여 그리스도교인, 유대교인, 무슬림, 힌두교인, 유교도 등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신 아래서 우주의 형제자매로서 그 신 조대로 사는 것.

자연종교에 대한 이신론자의 개념은 다양한 종교 형태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의 문을 열었음. 모든 종교의 기원을 자연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지혜가 현대의 변형된 형태로 점차 변화되고 분산되면서 발전했다고 봄. 중국풍, 즉 직물, 향료, 자기제품, 차, 가구 등이 성경의 도움없이 성취한 중국의 정중함, 우아함, 번영과 종교적 경건의 증거라 보았음.

○ 현대의 이론들

자연종교를 찬미하는 것은 계시종교를 비난하는 것. 이신론자들은 계시종교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의 왜곡된 공작이라고 봄. 이신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교회는 무지와 미신, 계시와 예식, 기적과 고백, 성례와 성인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된 성스러운 의례와 본문들을 팔아먹는 소매상인들로 채워져 있음. 반면 자연종교는 자연적이며 원초적인(primeval) 참 종교로, 교회와 교리와 성직자들에 의해 타락하기 오래 전 하나의 보편적 인류의 신앙. 그것은 초자연적(supernatural)이기보다는 자연적이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이신론자들은 합리성을 존중하지만, 종교에 생명을 주는 깊은 감정이나, 다양한 문화형태의 풍요한 역사와 자원에 대한 매혹을 전혀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 반면, 경건한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부흥사들, 낭만주의적 작가들과 학자들과 시인들은 교회와 성당에 대한 찬미, 예전과 의식의 탁월한 미, 성례와 기도의 힘 등 전체 종교적 신앙의 풍요로운 역사를 높이 평가. 종교의 역사적 형태와 제도는 종교정신의 적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종교의 햇불을 유지한다고 주장.

이런 두 가지 흐름, 즉 계몽주의적 이신론의 차가운 흐름과 종교적 낭만주의의 따뜻한 흐름이 막스 뮐러 속에서 합류함. 사상가로서의 뮐러는 이신론자였으나, 성격상으로는 낭만주의자. 이신론과 낭만주의라는 대조적인 관점이 뒤섞여 있는 현실로 인해 뮐러를 비롯한 학자들은 모든 종교를 연구할 동기와 이유를 얻음. 주로 역사적 연구방법 사용.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 최초의 종교에 대한 생각과 관습들을 찾아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진전과 향상을 조사하려 했음. 고고학, 역사, 언어, 신화 연구의 진전과 새로 개척된 민족학과 인류학 덕분. 뮐러 자신도 힌두교 베다(Vedas)와 신화에 대한 지식 갖추었고, 언어학 분야의 권위자였음.

또한 19세기 초 자연과학의 방법 있었음. 연구자들이 세계 종교들의 광범위한 사례에서 제의, 신앙, 풍습 같은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음.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여,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으며 그것이 무슨 목적에 이바지했는가를 설명하는 일반적 원칙, 즉 과학적 “발전의 법칙”을 추론할 수 있었음. 1800년대 중반, 프랑스, 독일, 영국의 학자들은 과학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종교의 기원에 관한 조직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음. 이들의 목표는 증거에 기초한 이론을 세우는 것. 견고한 사실들을 기초로 작업해서, 치밀하게 검사하고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일반론(generalizations)을 구성하려 했음. 뮐러와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하나의 예전이나 믿음, 한 장소와 한 시기의 종교가 아닌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종교 현상의 기원과 발전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오늘날의 학자들은 훨씬 더 조심하려는 경향. 그러나 서로 다른 많은 현상들을 하나의 일관되며 광범위하게 해명하는 모형이 될 수 있는 과학적인 일반이론을 세우려는 희망 여전히 갖고 있음. 종교에서도 독창적 이론은 실패한다 해도, 새로운 탐구를 유도하거나 새로운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들을 재구성함. 이 책에 나오는 이론가들의 사상과 해석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문학, 철학, 역사, 정치, 예술, 심리학 등 현대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덟 가지 이론들

19세기 종교에 대한 과학적 연구방법을 상상하기 시작한 이래로 제시된, 가장 중요한 여덟 가지 종교 이론 검토. 이론의 주요 대변자의 생애와 배경, 중심되는 저술들 속에 나타난 핵심 사상, 다른 이론들과 비교해서 뚜렷한 특징들, 비판자들이 제기한 주요 반론들 다름.

- 선택의 원칙

타일러와 제임스 프레이저, 지그문트 프로이트, 에밀 뒤르켐, 카를 마르크스, 막스 베버, 미르체아 엘리아데, 에반스-프리차드, 클리퍼드 기어츠. 막스뮐러가 종교과학이라는 개념을 고무한 점에서 중요하지만, 종교가 자연숭배에서 기원했다는 그의 이론 대부분이 그의 시대에 거부당했으며 이후에도 그 영향이 제한되었음. 프랑스 철학자 루씨앵 레비-브뤼엘(Lucien Lévy-Bruhl)은 시간이 지나면서 견해가 크게 바뀌었고, 그의 주요 논점을 에반스-프리차드가 입증했음. 카를 융이 종교에 대해 예민하고 호의적이며 짜임새 있는 연구를 했고 심리학 연구에 종교적 재료를 폭넓게 사용했으나, 프로이트에 비해 심리학의 기능주의적 해석에 대한 일관적인 주장이 덜 함.

- 용어 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하느님 혹은 신들, 초자연적인 영, 또는 내세(afterlife)에 대한 믿음을 생각함. ‘이론’도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왜’라는 일반적

질문에 대답해주는 일종의 해명이라고 생각함.

이 책의 이론가들은 종교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이러한 상식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았음. '종교'를 정의할 때, "하느님 혹은 신들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너무 특수하며 신학 적임. 불교와 유교를 포괄하지 못함. ① 뒤르켐과 엘리아데를 따라 종교를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 로 '성스러움(the sacred) 같은 광범위한 개념을 선호할 수 있음. 한 장소나 한 시대나 한 형태의 전통보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전통과 내력을 고려할 때 '성스러움'이라는 추상적 용어가 적합 하다는 생각. ② '실체주의적(substantive, 혹은 본질주의적 essentialist) 정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헌신하며 중요하다고 보는 믿음이나 생각의 관점에서 종교 정의. ③ '기능주의적(functional) 정의. 종교의 내용이나 사상은 제쳐놓고, 종교가 개인에게 위안과 행복의 느낌을 가져다주거나 집단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짐.

'이론'의 두 가지 실례. ① '기원'을 밝힘으로써 종교를 설명하려는 이론. '역사 이전 의(prehistorical) 기원은 역사가 시작될 때 어떻게 첫 인류가 종교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 '심리적인(psychological) 혹은 '사회적(social) 기원은 인간 역사의 어느 때에 어떻게 종교 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필요에 응해서 생겨났는가에 대한 설명. '지적인(intellectual) 기원은 한 시기에, 혹은 언제나, 세상에 관해 파악된 어떤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종교 적 주장을 믿게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 '역사적인(historical) 기원은 과거의 특정한 때와 장소에 서, 어느 예언자적 인물이나 특별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특수한 성격이 나 형태를 이루게 하였는가에 대한 설명. ② '실체주의적 접근방법'은 사람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는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를 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며 인간의 의도, 감정, 행위를 강조. 이것은 설명적이라기보다는 해석적임. 종교는 사람들에게 의해 채택되고 인간에게 의미를 주는 것 에 대한 것. 인간의 의도를 고려하는 해석이 종교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주장. '기능주의적 접근 방법'은 사회구조나 인식되지 못한 심리적 압력이 종교적 행위의 진정한 원천이라고 봄. 종교인 들 자신이 자기들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님.

이 책은 타일러와 프레이저의 고전적인 주지주의(intellectualist) 이론에서 시작. 설명적 (explanatory) 접근방법으로 옮겨서 프로이트, 뒤르켐, 마르크스를 통해 각각 심리적, 사회적, 경 제적 기능주의의 연장선 추구. 이런 '환원주의(reductionism)라고 불리는 과격한 형태의 설명적 접근방법에 반대하여, 적합한 이견을 표시한 베버와 더 강력한 항의를 제기한 엘리아데. 해석적 인 것과 설명적인 것의 분열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에반스-프리차드와 기어츠의 최근 이 론. 결론에서는 이론가들의 간격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하고 서로를 비교하며 분석 하는 최종 질문 제기.